

##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 구조 분석

### Variables Related to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al Analysis of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우 수 경\*  
Woo, Soo Kyeong  
최 기 영\*\*  
Choi, Kee Young

#### Abstract

Child's temperament, cognitive ability, social competence, mother's affective child rearing and positive expression, father's positive expression, and teacher's positive expression were the variables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structure of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EC). Subjects were 20 teachers and 236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Data were analyzed by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 a statistical program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showed that boys' social competence and mother's affective rearing behavior directly influenced the EC of boys; boys temperament and cognitive ability, and positive expressions of their teachers indirectly influenced the EC of boys. Girls'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directly influenced the EC of girls; their cognitive ability, mother's affective child rearing behavior, and positive expressions of mothers and fathers indirectly influenced the EC of girls.

**Key Words** : 정서능력(emotional competence),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기질(temperament), 인지능력(cognitive ability), 애정적 양육행동(affective rearing behavior), 긍정적 정서표현(positive expression)

\* 접수 2002년 8월 31일, 채택 2002년 10월 15일

\*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박사후연수 연구원, E-mail : pdywsk@kornet.net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I. 서론

정서능력(emotional competence)은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고, 조절하며, 정서에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의 정서경험과 정서가 개입된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Saarni, 1999)이다.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정서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서능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는 유아들은 현재의 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Denham, 2001; Sroufe, Schork, Motti, Lawroski, & LaFreniere, 1984).

유아의 정서능력이 또래간 인기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유치원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Fabes, Eisenberg, Hanish, & Spinrad, 2001; Garner & Estep, 2001)은 정서능력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켰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감성 계발 교육의 강조'가 개정 중점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1998).

유아의 정서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 집합적으로 사회화되므로(Saarni, 1989), 유아가 가정의 부모나 유치원 교사 중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정서적인 손상을 입게 되더라도, 나머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Gordon, 1989). 이처럼 유아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전인으로서 발달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변인에 의존하기보다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상호보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Howes, 1988) 이들 변인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른 시도로 우수경과 최기영(2002)은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 유아의 인지능력,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

동,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구조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아의 정서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질,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유아의 기질과 인지능력, 어머니, 아버지 및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의 정서능력은 사회적 능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내적 변인과 대인관계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기질, 성, 인지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대인관계 변인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능력은 사회적 능력과 상관성이 있으며(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Garner, Jones, & Miner, 1994), 유아의 기질은 감정입입(Roberts & Strayer, 1996; Sroufe et al., 1984)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김지현, 2000; 이현민, 1998), 아버지의 지원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Cy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와 애정적 양육행동(박성연·임희수, 2000; Engfer, 1990)에 기여한다. 또 우수경과 최기영(2002)의 연구에서, 유아의 인지능력과 아버지와 교사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역시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겨지나 성별에 따른 차이나 영향력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서 유아의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Friend & Davis, 1993; Gnepp & Hess, 1986; Harris, Donnelly, Gabriell, & Pitt Watson, 1986)이 일부 수행되었으나, 이와는 상반되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하며(이지은, 1996; Casey, 1993; Fuchs & Thelen, 1988;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감정이입이나 타인의 정서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Golombok & Fivush, 1994). 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분노, 두려움, 행복감 등의 정서를 남아에 비하여 여아들이 더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Lewis & Michaelson, 1983). 이와 같이 정서능력의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검사도구의 차이나 측정된 정서유형의 차이에 의해서일 수도 있으나, 각 문화마다 성별에 따른 양육환경과 정서의 사회화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Saarni, 1989).

한편 부모에게 보이는 유아의 정서표현이나 부모의 정서 수용태도에 대한 유아의 지각 역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 대상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분노, 슬픔, 고통 등의 부정적 정서의 경우, 유아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이 표현하며,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에게 표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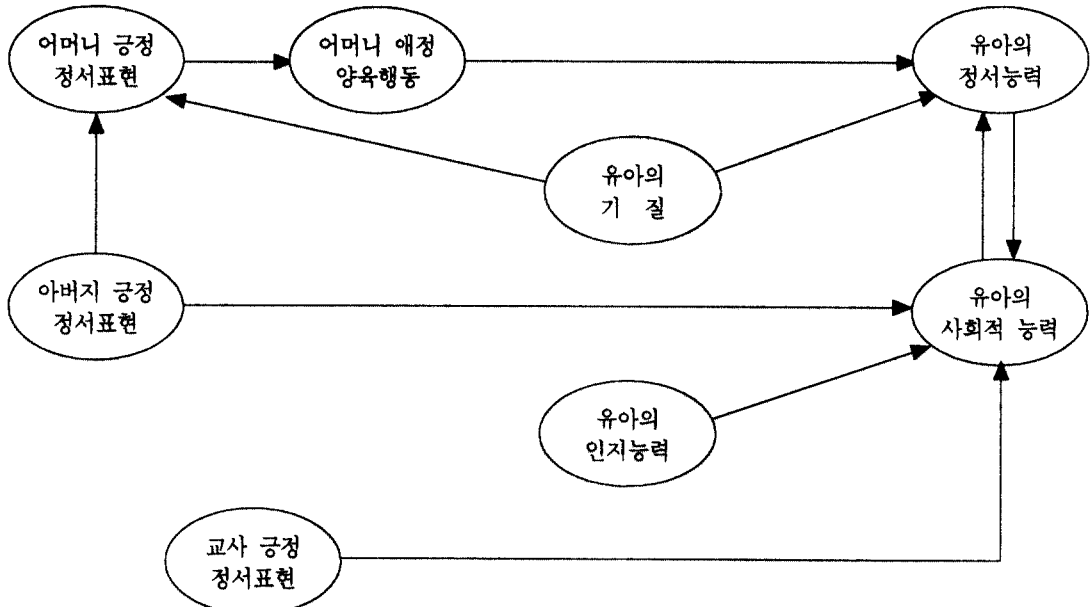
는 슬픔이 줄어들고 아버지의 정서 수용태도를 통제적으로 지각하며,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부모의 정서 수용태도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각으로 인하여 유아의 슬픔 표현 조절은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Fuchs & Thelen, 1988; Zeman & Garber, 1996).

그 밖에 부모의 정서표현이나 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며(Golombok & Fivush, 1994), 어머니들은 남아의 과잉행동, 인내력 부족, 주의산만, 불안행동에 대하여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여(Battle & Lacey, 1972),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역시 유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역시 유아를 대하는 표현이나 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유치원교사들은 남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여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최기영, 1987; Galejs & Hegland, 1982; Wittmore & Honig, 1988), 여아들에게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며(Botkin & Twardosz, 1988), 여아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아와는 보다 갈등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진숙·조복희, 2001; Birch & Ladd, 1997; Saft, 1994).

이처럼 정서능력의 성차 유무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우수경·최기영, 2002)에서 밝혀진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모형이 남아와 여아 각각의 경우에도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유아의 기질, 유아의 인지능력,



〈그림 1〉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구조모형

유아의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유아의 정서능력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구조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 및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을 실시한 우수경과 최기영(200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

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가설적 구조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와 대전에 소재한 17개 공·사립 유치원 20학급의 교사 20명과 만 5세 유아 236명(남아 111명, 여아 125), 그리고 대상 유아의 부모 472명(어머니 236명과 아버지 236명)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을 보면, 유아의 형제수는 3형제 이상(54.3%), 2형제(25.4%), 외동(20.3%)의 순이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보면, 어머니는 고졸(61.9%), 대졸(27.1%)의 순으로 많았고, 아버지는 대졸(52.1%), 고졸(36.4%) 순으로 많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비취업모(76.3%)가 취업모보다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67.8%)과 자영업(25.0%) 순

이었다. 유치원 교사의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교육경력 5년 이상(85%), 대졸 이상(60%), 기혼(60%)이 각각 많았고, 기관유형은 국·공립과 사립이 각각 50%이었다.

## 2. 연구 도구

인지능력 검사도구 이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우수경과 최기영(2002)의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들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정서능력 검사

유아의 정서능력 검사는 관계문헌(Greener, 1998; Saarni, 1999; Shield & Cicchetti, 1995)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한 도구이다. 전체 39문항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6점 척도이며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정서표현,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어휘의 6개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4, .91, .89, .86, .67, .88이었고 전체 정서능력의 내적합치도는 .94였다.

### 2) 유아의 기질 검사

유아의 기질 검사는 관계문헌(홍계옥, 1995; Eisenberg & Fabes, 1994; Goldsmith & Rothbart, 1991)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한 도구이다. 전체 19문항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6점 척도이며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적응성, 규칙성, 진정성, 반응성의 4개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78, .72, .66, .78이었고 전체 기질의 내적합치도는 .78이었다.

### 3) 유아의 인지능력 검사

유아의 인지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한국 행동과학연구소(1993)에서 개발한 유아지능검사(KISC : KIRBS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 3세~5세 유아용으로 개발된 표준화 검사도구로서 지각력, 어휘력, 이해력, 수리력, 사고력의 5개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 4)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검사

유아의 사회적 능력 검사는 관계문헌(노명희, 1995; Greener, 1998; Lindsey, 1997)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한 도구이다. 전체 23문항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6점 척도이며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점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주도성, 협조성, 사교성의 3개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92, .88, .92였고 전체 사회적 능력의 내적합치도는 .92였다.

### 5)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검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검사는 관계문헌(홍계옥, 1995; Crase, Clark, & Pease, 1979; Rohner, 1986)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내용타당도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한 도구이다. 전체 20문항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6점 척도이며 어머니가 자기-보고에 의하여 평정하였다. 정서적 반응과 존중·참여의 2개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83, .84였고 전체 애정적 양육행동의 내적합치도는 .88이었다.

### 6)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 검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검사는 Halberstadt(1986)의 'Family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FEQ)'를 번역·수정하여 내용타당도를 구하고 요인분석을 한 도구이다. 단일 요인인 전체 18문항의 문항별 반응 양식은 Likert식 6점 척도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자기-보고에 의하여 평정하였다.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는 .90이었고,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내적합치도는 .92였다.

#### 7) 유치원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 관찰

유치원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각 교사별로 자유선택활동 80분(40분×2회)과 이야기나누기 40분(20분×2회), 총 120분간 관찰하여 확인하였다. 관찰장면은 교사의 얼굴표정과 행동을 중심으로 녹화하고 녹음하였다.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 빈도를 산출하기 위해 관계문헌(이경희, 1993; Reimer, 1996)을 토대로 분석범주를 작성하여 내용타당도를 구하였으며, 사전표집법으로 분석하였다. 정서표현의 범주는 표정(미소짓기/웃기, 놀란 표정), 음성(칭찬/감탄 표현하기, 긍정적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기, 노래 흥얼거리기), 몸짓(신체적 친근감 표현하기, 긍정적 반응 보이기)이다. 관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와 유아교육전문가 2인의 평정 훈련을 거친 후, 각자 평정한 결과에 대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97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2000년 11월과 2001년 3월의 두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와 예비관찰을 실시하였으며, 본 검사로서 설문지 배부 및 회수, 관찰과 비디오 녹화, 지능검사를 위한 개별 면담은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우수경과 최기영(2002)의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서, 남·여아별로 기술통계치(평균, 표준편차, Pearson 적률상관계수) 및 다변량 정상분포 여부를 검토한 후, 남·여아별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모형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남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 1) 기술통계치

남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27개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1>에서 보면, 남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정서표현, 자기인식, 타인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

과 정서어휘간의 상관은 .21~.66이었는데 정서조절이 다른 변인들과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기질에 대한 네 측정변인인 적응성, 규칙성, 진정성과 반응성간의 상관은 -.02~.38로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세 측정변인인 주도성, 협조성과 사교성간 상관은 .31~.60이었으며, 인지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지각력, 어휘력, 이해력, 수리력과

사고력간 상관은 .48~.67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두 측정변인인 정서적 반응과 존중·참여간 상관은 .47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두 측정변인들은 동일요인에 부하되는 문항들을 전후양분한 평균값들이기 때문에 각각 .78과 .75의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세 측정변인인 표정, 음성, 몸짓간 상관은 .40~.44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이 최종 종속변인인 정서능력의 측정변인들에 대해 갖는 상관의 크기를 보면, 사회적 능력의 세 측정변인들, 기질의 측정변인 중 반응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측정변인들의 평균을 보면, 관찰점수인 표정, 음성, 몸짓의 평균은 40.17~220.39이고, 24점 만점의 검사 점수인 지각력, 어휘력, 이해력, 수리력과 사고력의 평균은 15.78~20.29이었으며, 6단계 평정 문항의 평균값인 나머지 측정변인들은 4.18~5.25의 값을 보였다.

2) 연구모형 분석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고정시키고(fix),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크면서 이론적으로 타

〈표 1〉 남아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Pearson 적률상관계수 (N=111)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유아의 정서능력	1. 정서표현	1.00																													
	2. 자기인식	0.66	1.00																												
	3. 타인인식	0.51	0.58	1.00																											
	4. 감정이입	0.46	0.39	0.56	1.00																										
	5. 정서조절	0.21	0.35	0.42	0.28	1.00																									
	6. 정서어휘	0.63	0.59	0.51	0.44	0.30	1.00																								
유아의 기질	7. 적응성	0.10	0.10	0.03	0.21	0.02	0.20	1.00																							
	8. 규칙성	-0.09	-0.10	0.04	-0.09	0.07	0.08	-0.02	1.00																						
	9. 진정성	0.18	0.10	0.10	0.23	0.07	0.13	0.21	0.08	1.00																					
	10. 반응성	0.22	0.24	0.33	0.23	0.22	0.31	0.38	0.18	0.04	1.00																				
유아의 인지능력	11. 지각력	0.21	0.19	0.23	0.15	0.02	0.13	0.05	0.03	0.14	0.14	1.00																			
	12. 어휘력	0.26	0.30	0.22	0.14	0.15	0.22	-0.03	0.03	0.12	0.11	0.53	1.00																		
	13. 이해력	0.26	0.32	0.22	0.12	0.12	0.19	0.10	-0.06	0.18	0.27	0.48	0.67	1.00																	
	14. 수리력	0.18	0.18	0.13	0.04	0.01	0.13	0.00	-0.02	0.00	0.11	0.57	0.63	0.54	1.00																
	15. 사고력	0.24	0.30	0.29	0.14	0.11	0.22	-0.03	-0.01	0.02	0.13	0.59	0.57	0.51	0.61	1.00															
유아의 사회적 능력	16. 주도성	0.52	0.51	0.43	0.38	0.27	0.45	0.18	0.06	0.11	0.26	0.41	0.47	0.43	0.33	0.46	1.00														
	17. 협조성	0.31	0.39	0.42	0.20	0.43	0.31	-0.07	-0.07	0.22	0.07	0.19	0.27	0.32	0.10	0.19	0.31	1.00													
	18. 사교성	0.44	0.34	0.41	0.29	0.17	0.29	0.09	-0.11	0.13	0.16	0.27	0.28	0.34	0.21	0.32	0.60	0.51	1.00												
어머니의 애정양육행동	19. 정서적반응	0.26	0.33	0.30	0.26	0.26	0.18	-0.02	0.07	0.07	0.30	-0.06	0.09	0.16	0.04	0.04	0.06	0.15	-0.02	1.00											
	20. 존중참여	0.26	0.23	0.37	0.32	0.17	0.27	0.13	0.03	0.01	0.24	0.11	0.00	-0.02	-0.08	0.14	0.12	0.13	0.04	0.47	1.00										
	21. 긍정1	0.23	0.20	0.32	0.39	0.23	0.16	0.22	-0.10	-0.04	0.32	0.00	0.03	0.09	0.04	0.03	0.17	0.00	0.02	0.53	0.41	1.00									
	22. 긍정2	0.20	0.24	0.24	0.34	0.09	0.14	0.21	0.02	0.08	0.33	-0.04	-0.04	0.06	-0.05	-0.01	0.12	-0.04	-0.09	0.59	0.50	0.78	1.00								
	23. 긍정1	0.21	0.17	0.19	0.22	0.15	0.09	0.17	0.00	0.14	0.33	0.09	0.10	0.19	0.01	0.10	0.22	0.02	0.07	0.21	0.11	0.23	0.23	1.00							
	24. 긍정2	0.23	0.17	0.22	0.24	0.01	0.15	0.15	-0.05	-0.03	0.27	0.16	0.18	0.19	0.12	0.25	0.29	0.02	0.04	0.18	0.22	0.28	0.24	0.75	1.00						
	25. 표정	0.21	0.35	0.27	0.11	0.24	0.14	-0.12	0.08	-0.04	0.00	-0.14	0.14	0.22	0.05	0.06	0.15	0.32	0.09	0.18	0.07	0.06	0.10	0.09	0.11	1.00					
	26. 음성	0.19	0.27	0.22	0.14	0.23	0.03	-0.12	0.01	-0.06	0.02	-0.05	-0.03	0.03	-0.03	-0.02	0.24	0.20	0.15	0.12	0.13	0.04	0.12	-0.02	-0.03	0.40	1.00				
	27. 몸짓	0.14	0.22	0.01	0.00	0.04	0.07	-0.16	-0.09	-0.12	-0.13	-0.26	-0.07	-0.04	-0.11	-0.18	-0.03	0.16	-0.05	0.19	0.05	0.02	0.15	-0.06	-0.06	0.44	0.42	1.00			
	평 균		4.59	5.09	4.70	4.25	4.29	4.43	4.47	4.69	4.46	4.92	15.78	18.05	20.29	18.47	16.00	4.37	4.28	4.40	5.25	4.40	4.75	4.84	4.18	4.46	220.35	77.85	40.17		
표준편차		0.66	0.67	0.63	0.73	0.81	0.76	0.73	0.71	0.67	0.72	3.93	3.83	2.76	3.83	4.44	0.67	0.64	0.73	0.43	0.59	0.61	0.60	0.73	0.72	87.31	36.26	28.10			

〈표 2〉 남아 최종모형의 합치도

합치도	$\chi^2$ (df)	$\chi^2/df$	RMSEA	RMR	GFI	CFI	NNFI
값	417.28*** (316)	1.321	.048	.094	.79	.91	.90
기준	p>.05	<2.0	<.05	<.05	>.90	>.9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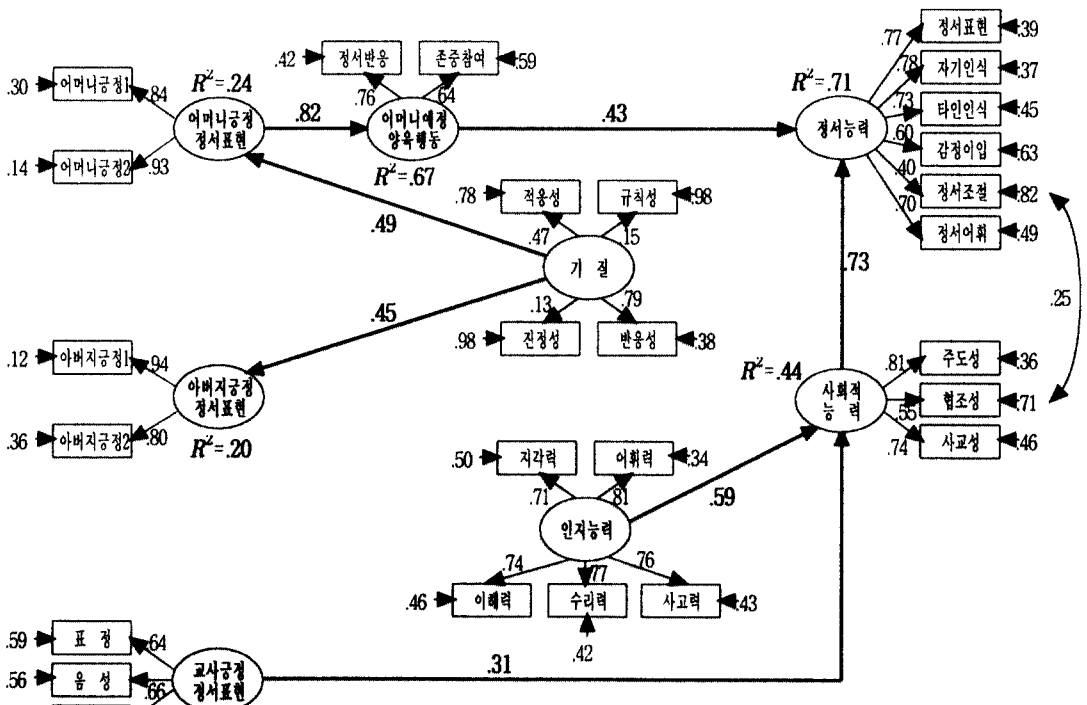
주) \*\*\*p<.001. RMSEA(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 RMR(평균잔차제곱근), GFI(합치지수), CFI(비교합치지수), NNFI(비표준합치지수).

당한 경로는 풀어주는(free) 방식으로 모형을 여러 차례 수정한 결과, 대부분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되 1.00 미만의 값을 갖고, 모든 경로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합치도 지수가 양호한 모형을 남아의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남아 최종모형의 합치도를 보면, 7개의 합치도 지수 중에서 4개( $\chi^2/df$ ,

RMSEA, CFI, NNFI)가 기준에 적합한 값을 보여 모형이 자료와 적절하게 합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욱이 최종모형은 모든 합치도 지수가 기준 값에 더 근접하여 가설적 구조모형보다 개선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에 제시된 남아 최종모형의 결과에서 측정변인인 규칙성 및 진정성의 요인계수(.15와 .13)와 아버지긍정1의 오차(.12)를 제외



주) N=111;  $\chi^2=417.28$  (p<.001), df=316,  $\chi^2/df=1.321$ , RMSEA=.048, RMR=.094, GFI=.79, CFI=.91, NNFI=.90

〈그림 2〉 남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에 대한 최종모형



한 모든 계수들은 최소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우선 측정모형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측정변인들이 본래 의도했던 잠재변인에 적절히 부하되고 있지만, 기질의 경우 반응성과 적응성의 요인계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기질을 반응성과 적응성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협조성과 정서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정서조절의 요인계수가 각각 .55와 .40으로 낮고 오차간 상관(.25)도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잠재변인모형 부분에서, 남아의 정서능력에 대해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남아의 사회적 능력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와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남아의 기질과 인지능력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남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남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합한 전체 영향력을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73), 유아의 인지능력(.43),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43),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35),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23), 유아의 기질(.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잠재변인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각 잠재변인이 설명되는 정도를 중다상관제곱(SMC;  $R^2$ )으로 살펴보면, 정서능력은 71%, 사회적 능력은 44%,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67%,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24%, 그리고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20%가 모형내 다른 잠재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 2. 여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 1) 기술통계치

여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27개

<표 3> 남아 최종모형의 잠재변인간 영향관계

독립변인	직접영향	간접영향	전체영향	종속변인	중다상관제곱 (설명분산)
교사 긍정정서표현		.23*	.23*	유아 정서능력	71%
어머니 긍정정서표현		.35***	.35***		
어머니 애정적양육행동	.43***		.43***		
인지능력		.43***	.43***		
사회적 능력	.73***		.73***		
기 질		.17**	.17**		
교사 긍정정서표현	.31**		.31**	유아	44%
인지능력	.59***		.59***	사회적 능력	
어머니 긍정정서표현	.82***		.82***	어머니 애정 양육행동	67%
기 질		.40**	.40**		
기 질	.49**		.49**	어머니 긍정 정서표현	24%
기 질	.45**		.45**	아버지 긍정 정서표현	2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4>에서 보면, 여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정서표현, 자기인식, 타인인식, 감정이입, 정서조절과 정서어휘간의 상관은 .08~.66이었는데 정서조절이 다른 변인과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기질에 대한 네 측정변인인 적응성, 규칙성, 진정성과 반응성간의 상관은 .11~.37로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한편,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세 측정변인인 주도성, 협조성과 사교성간 상관은 .26~.49이었으며, 인지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지각력, 어휘력, 이해력, 수리력과 사고력간 상관은 .28~.52이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두 측정변인인

정서적 반응과 존중·참여간 상관은 .65이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두 측정변인들은 동일요인에 부하되는 문항들을 전후양분한 평균값들이기 때문에 각각 .72과 .77의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세 측정변인인 표정, 음성, 몸짓간 상관은 .25~.48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인들이 최종 종속변인인 정서능력의 측정변인들에 대해 갖는 상관의 크기를 보면, 사회적 능력의 측정변인인 주도성, 협조성과 사교성, 기질의 측정변인 중 반응성,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측정변인들보

<표 4> 여아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Pearson 적률상관계수 (N=125)

잠재변인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유아의 정서능력	1. 정서표현	1.00																															
	2. 자기인식	0.54	1.00																														
	3. 타인인식	0.66	0.63	1.00																													
	4. 감정이입	0.48	0.53	0.54	1.00																												
	5. 정서조절	0.15	0.17	0.28	0.33	1.00																											
	6. 정서어휘	0.53	0.46	0.50	0.35	0.08	1.00																										
유아의 기질	7. 적응성	0.29	0.11	0.20	0.21	0.07	0.16	1.00																									
	8. 규칙성	0.11	-0.04	0.12	0.13	0.13	0.06	0.25	1.00																								
	9. 진정성	0.24	0.10	0.14	0.26	0.21	0.15	0.37	0.29	1.00																							
	10. 반응성	0.27	0.37	0.29	0.32	0.04	0.29	0.11	0.24	0.21	1.00																						
유아의 인지능력	11. 지각력	-0.01	-0.01	-0.03	-0.08	0.01	0.02	0.08	0.27	0.03	0.11	1.00																					
	12. 어휘력	-0.00	0.00	0.09	0.11	0.07	0.03	-0.08	0.07	-0.03	0.16	0.45	1.00																				
	13. 이해력	0.16	0.02	0.16	0.05	0.10	0.22	0.05	0.00	0.00	0.06	0.28	0.52	1.00																			
	14. 수리력	0.07	0.02	0.07	-0.09	0.14	-0.04	-0.03	0.18	0.01	-0.04	0.41	0.48	0.36	1.00																		
	15. 사고력	0.00	0.06	0.12	0.06	0.13	0.09	-0.05	0.15	0.01	0.10	0.37	0.45	0.50	0.37	1.00																	
유아의 사회적 능력	16. 주도성	0.29	0.28	0.25	0.28	0.21	0.34	0.23	0.12	0.08	0.15	0.06	0.20	0.32	0.18	0.35	1.00																
	17. 협조성	0.17	0.08	0.21	0.18	0.42	-0.01	-0.05	0.20	0.04	-0.06	0.06	0.09	0.10	0.21	0.16	0.26	1.00															
	18. 사교성	0.23	0.20	0.17	0.35	0.33	0.16	0.22	0.10	0.18	0.08	0.11	0.10	0.15	0.09	0.16	0.49	0.28	1.00														
어머니의 애정양육행동	19. 정서적반응	0.29	0.22	0.31	0.29	0.27	0.35	0.02	0.15	0.02	0.37	0.04	0.13	0.16	0.04	0.20	0.28	0.11	0.19	1.00													
	20. 존중참여	0.11	0.11	0.24	0.10	0.15	0.26	-0.02	0.24	0.09	0.37	0.09	0.08	0.07	-0.01	0.21	0.17	0.02	0.10	0.65	1.00												
어머니의 긍정정서표현	21. 긍정1	0.34	0.08	0.27	0.23	0.14	0.37	0.16	0.18	0.10	0.32	0.07	0.24	0.22	0.06	0.17	0.18	0.04	0.23	0.52	0.54	1.00											
	22. 긍정2	0.34	0.22	0.34	0.24	0.14	0.44	0.17	0.13	0.06	0.45	0.02	0.12	0.18	-0.03	0.12	0.21	0.09	0.20	0.57	0.47	0.72	1.00										
아버지의 긍정정서표현	23. 긍정1	0.10	0.06	0.10	0.13	0.18	0.19	0.05	-0.05	0.08	0.09	-0.12	-0.04	0.03	-0.03	0.08	0.23	0.13	0.16	0.15	0.20	0.19	0.14	1.00									
	24. 긍정2	0.17	0.05	0.16	0.13	0.21	0.25	0.04	0.04	0.09	-0.01	-0.14	-0.05	0.10	-0.04	0.09	0.28	0.17	0.15	0.17	0.21	0.13	0.12	0.77	1.00								
교사의 긍정정서표현	25. 표정	0.00	0.20	0.06	0.14	0.11	0.06	-0.07	0.11	0.04	0.31	0.08	0.28	0.10	0.13	0.15	0.13	0.00	-0.04	0.09	-0.01	0.06	0.11	-0.08	-0.16	1.00							
	26. 음성	0.03	0.14	-0.01	0.02	-0.11	0.02	0.09	0.17	0.11	-0.07	0.06	-0.01	-0.06	-0.01	-0.01	-0.11	-0.02	0.12	0.00	-0.09	-0.03	-0.11	-0.13	0.48	1.00							
교사의 긍정정서표현	27. 몸짓	0.08	-0.03	-0.02	-0.04	0.02	0.08	0.17	0.09	0.08	-0.01	0.07	0.07	0.14	0.01	-0.01	0.16	0.01	0.07	0.05	-0.02	-0.01	0.00	0.06	0.03	0.25	0.29	1.00					
	평균	4.76	5.24	4.88	4.62	4.31	4.64	4.24	4.53	4.32	5.18	15.54	19.09	21.01	18.50	16.78	4.52	4.51	4.42	5.13	4.19	4.54	4.70	4.25	4.44	218.24	80.65	39.64					
표준편차	0.54	0.53	0.52	0.60	0.73	0.71	0.79	0.85	0.83	0.63	4.81	2.83	2.38	3.19	3.93	0.54	0.51	0.62	0.48	0.60	0.66	0.63	0.63	0.69	78.70	34.12	23.56						

〈표 5〉 여아 최종모형의 합치도

합치도	$\chi^2$ (df)	$\chi^2/df$	RMSEA	RMR	GFI	CFI	NNFI
값	421.90*** (314)	1.344	.044	.085	.81	.90	.88
기준	$p > .05$	<2.0	<.05	<.05	>.90	>.90	>.90

주) \*\*\* $p < .001$ . RMSEA(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 RMR(평균잔차제곱근), GFI(합치지수), CFI(비교합치지수), NNFI(비표준합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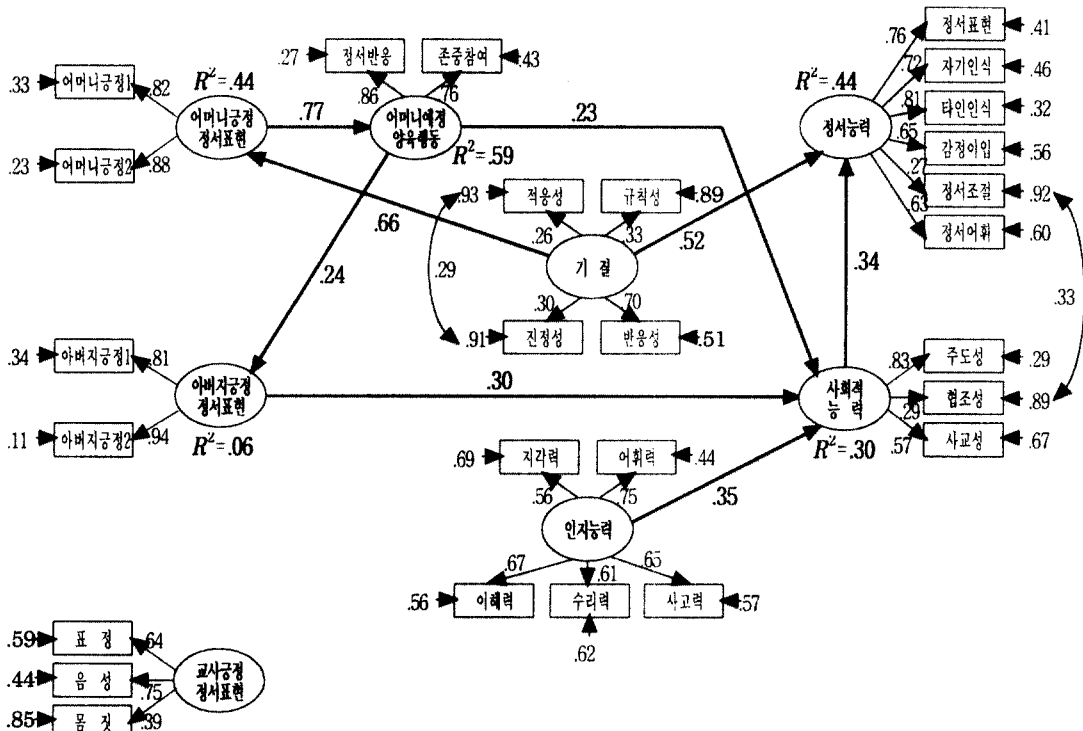
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측정변인들의 평균을 보면, 관찰 점수인 표정, 음성, 몸짓의 평균은 39.64~218.26이고, 24점 만점의 검사 점수인 지각력, 어휘력, 이해력, 수리력과 사고력의 평균은 15.54~21.01이었으며, 나머지 측정변인들은 6단계 평정 문항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4.24~

5.24의 값을 보였다.

2) 연구모형 분석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고정시키고(fix),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크면서 이론적으로 타당한 경로는 풀어주는(free) 방식으로 모형을



주)  $N=125$ ;  $\chi^2=421.90$  ( $p < .001$ ),  $df=314$ ,  $\chi^2/df=1.344$ , RMSEA=.044, RMR=.085, GFI=.81, CFI=.90, NNFI=.88

〈그림 3〉 여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에 대한 최종모형

여러 차례 수정한 결과, 대부분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되 1.00 미만의 값을 갖고, 모든 경로가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합치도 지수가 양호한 모형을 여아의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5>에 제시된 여아 최종모형의 합치도를 보면, 7개의 합치도 지수 중에서 3개( $\chi^2/df$ , RMSEA, CFI)가 기준에 적합한 값을 보여 모형이 자료와 적절하게 합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욱이 최종모형은 모든 합치도 지수가 기준 값에 더 근접하여 가설적 구조모형보다 개선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여아 최종모형의 결과에서 측정변인인 규칙성의 요인계수(.33)와 아버지 긍정2의 오차(.11)를 제외한 모든 계수들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우선 측정모형 부

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측정변인들이 본래 의도했던 잠재변인에 적절히 부하되고 있지만, 기질의 경우 규칙성의 요인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적응성과 진정성의 오차간에 상관(.29)이 존재하므로 반응성 중심으로 기질을 해석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협조성과 정서능력에 대한 측정변인인 정서조절의 요인계수가 각각 .29와 .27로 낮고 오차간 상관(.33)도 존재하였으며,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측정변인 중에 몸짓의 요인계수(.39)도 낮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인모형 부분을 보면, 여아의 정서능력에 대해서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질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및 유아의 인지능력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표 6> 여아 최종모형의 잠재변인간 영향관계

독립변인	직접영향	간접영향	전체영향	종속변인	중다상관계급 (설명분산)
아버지 긍정정서표현		.10*	.10*	유아 정서능력	44%
어머니 긍정정서표현		.08*	.08*		
어머니 애정적양육행동		.10*	.10*		
인지능력		.12*	.12*		
사회적 능력	.34**		.34**		
기 질	.52*	.05	.57*		
아버지 긍정정서표현	.30**		.30**	유아 사회적 능력	30%
어머니 긍정정서표현		.23**	.23**		
어머니 애정적양육행동	.23*	.07	.30**		
인지능력	.35**		.35**		
기 질		.15	.15		
어머니 긍정정서표현	.77***		.77***	어머니 애정 양육행동	59%
기 질		.51*	.51*		
기 질	.66*		.66*	어머니 긍정 정서표현	44%
어머니 긍정정서표현		.18*	.18*	아버지 긍정 정서표현	6%
어머니 애정적양육행동	.24*		.24*		
기 질		.12	.1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긍정적 정서 표현은 어떤 변인과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며, 유아의 정서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여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합한 전체 영향력을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57), 사회적 능력(.34), 인지능력(.1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10),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10),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잠재변인간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각 잠재변인이 설명되는 정도를 중다상관제곱(SMC;  $R^2$ )으로 살펴보면, 정서능력은 44%, 사회적 능력은 30%,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5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44%, 그리고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6%가 모형내 다른 잠재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러나 여아의 인지능력과 기질 및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모형내 다른 잠재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다상관제곱이 0%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그리고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적 가설모형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가설모형이 실제 자료와 합치하는지를 성별로 분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보여주는 변인간 경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 구조 분석 결과, 최종모형에서 남아의 정서능력의 71%가 설명되어졌으며, 남아의 정서능력에 대하여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인지능력과 기질 및 어머니와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남아의 기질의 영향만 받을 뿐 정서능력을 포함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합한 전체 영향력을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73), 유아의 인지능력(.43),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43),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35),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23), 유아의 기질(.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 구조 분석 결과, 최종모형에서 여아의 정서능력의 44%가 설명되어졌으며, 여아의 정서능력에 대하여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인지능력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여아의 정서능력을 포함한 다른

어떤 변인과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 여아의 정서능력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합한 전체 영향력을 크기 순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57), 사회적 능력(.34), 인지능력(.12),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10),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10),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남아의 정서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인 반면, 여아의 정서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아의 기질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의 정서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사회적 능력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 남아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여아는 기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남아와 여아 모두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 변인간에 상관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Denham et al., 1990; Garner et al., 1994; Sroufe et al., 1984)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 영향력의 크기나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유아의 인지능력과 기질,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애정적 양육행동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이 감정이입능력에 영향을 미치며(Roberts & Strayer, 1996; Sroufe et al., 1984),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지현, 2000; 이현민, 1998; Fabes, Eisenberg, Karbon, Bernzweig, Speer, & Carlo, 1994)과 일관된 결과이며,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상미현·김지신·도현심, 1999)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 중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여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별로 없으나,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조절이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하는 반면, 아버지는 아들과 딸의 정서표현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며, 딸보다는 아들의 정서규제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한유진·유안진, 1998; Block, 1979; Fabes et al. 1994)과 관련지어 볼 때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이 다르므로 그 영향력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부모에 대한 유아의 정서 역시 대상이 아버지인지 혹은 어머니인지에 따라 다르며, 정서표현 시에 보이는 부모의 반응에 대한 유아의 지각도 대상이 아버지인지 혹은 어머니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Zeman & Garber, 1996; Zeman & Shipman, 1996) 역시 본 연구에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유치원 교사의 정서표현 역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정서표현은 남아의 정서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여아의 정서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사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여아들에게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며(Botkin & Twardosz, 1988), 남아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 여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기영, 1987; Galejs & Hegland, 1982; Wittmore & Honig,

1988). 그리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에서 이혜정(2001)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남아와 여자를 다르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제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의식하지 못한 채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여아에 비하여 남아에 대한 호칭의 수가 많고, 성역할 기대 역시 큰 것이라고 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교사-유아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아의 성별에 따라 교사와의 친밀감이나 갈등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즉 남아와 교사간의 관계는 여아와 교사간의 관계에 비하여 더 갈등적이며, 여아는 보다 친밀하고 의존적인 교사-유아관계를 맺고 있으며(Birch & Ladd, 1997; Saft, 1994), 교사 역시 여아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반면, 남아와는 갈등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이진숙·조복희, 2001). 이처럼 교사의 정서표현이나 반응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교사의 정서표현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남아의 정서능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와 직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유아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타자들인 부모와 교사 변인 중, 어머니는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는 여아에게만, 교사는 남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는 일차적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제외한 의미있는 타자들 중에서 동성 성인보다는 이성 성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여아의 경우에는 이성 성인인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영향을 미치며, 남아의 경우 역시 이성 성인인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아버지 혹은 교사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거나 반응을 보임으로써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아버지나 교사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남아와 여아가 각기 달리 해석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혹은 복합적인 영향인지 등을 심도있게 밝혀줄 수 있는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남아의 정서능력은 남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남아의 인지능력과 기질 및 어머니와 교사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여아의 정서능력은 여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여아의 인지능력과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개별면담, 관찰법을 사용한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성별로 구분된 각 집단의 연구대상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변인들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후속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함으로써 변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심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집*. 서울 : 교육부.
- 김지현 (2000).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명희 (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임희수 (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 상미현·김지신·도현심 (199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37(11), 115-124.
- 우수경·최기영 (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된 인간의 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2(2), 29-55.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은 (1996).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숙·조복희 (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17-29.
- 이현민 (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정 (2001). 유치원 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기영 (198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여성연구*, 5(3), 112-140.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3). *KISC 유아지능검사*. 서울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한유진·유안진 (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 (11), 61-72.
- 홍계옥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sychology*, 35(1), 61-79.
- Block, J. H. (1979). Another look at sex differentiation in the socialization behaviors of mothers and fathers. In J. Sherman & F. L. Denmark (Eds.), *Psychology of women :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pp. 29-87). New York : Psychological Dimensions.
- Botkin, D., & Twardosz, S. (1988). Early childhood teachers' affectionate behavior : Differential expression to female children, male children, and groups of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67-177.
- Casey, R. J. (1993).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 : Relations among expression, self report, and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 119-129
- Crase, S. J., Clark, S., & Pease, D. (1979).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Manual*. Ames, Iowa :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Cynic, K.,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Denham, S. A. (2001). Dealing with feelings : Foundations and consequence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5-10.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 Holt, R. W.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Children's enacted interpersonal strategies : Their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negative emotion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2-232.
- Engfer, A. (1990). The interrelatedness of marriage and the mother- child relationship. In R. A. Hinde & J. S. 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104-118). Oxford, England : Oxford.
- Fabes, R. A., Eisenberg, N., Hanish, L. D., & Spinrad, T. L. (2001). Preschoolers' spontaneous emotion vocabulary : Relations to likability.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11-28.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4-55.
- Friend, M., & Davis, T. L. (1993).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and affective doma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07-914.
- Fuchs, D., & Thelen, M. H. (1988). Children's expected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communicating their affective state and reported likelihood of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9*, 1314-1322.
- Galejs, I., & Hegland, S. (1982). Teac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locus of control tendenc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9(2)*, 293-302.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29-48.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nepp, J., & Hess, D. L.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oldsmith, H. H., & Rothbart, M. K. (1991). Contemporary instruments for assessing early temperament by questionnaire and in the laboratory. In A. Angleitner & J. Strelan (Eds.), *Explorations in temperament* (pp. 249-272). New York : Plenum.
- Golombok, S., & Fivush, R. (1994). *Gender Develop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rdon, S. L. (1989).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s : Emotional culture, competence, and exposure.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pp. 319-340).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er, S. H.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predispositions, emotional decoding and regulation skill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Howes, C. (1988).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 care and schoo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3-57.
- Lewis, M., & Michalson, L. (1983). *Children's emotions and moods*. New York : Plenum.
- Lindsey, E. W. (1997). Parents as play partners :

- Mechanisms linking parent-child play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Alabama.
- Reimer, K. J. (1996). Emotion socialization an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preschool contex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Beverly Hills, CA : Sage.
-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pp. 181-207).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Saft, L. (1994). A descriptive study of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with preschool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 Shield, S., & Cicchetti, D. (199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regulation assessment battery : Reliability and validity among at-risk grade-school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 Sroufe, L. A., Schork, E., Motti, E., Lawroski, N., & LaFreniere, P. (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289-31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derwood, W., Coie, J., & Herbs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36-380.
- Wittmore, D., & Honig, A. (1988). Teacher re-creation of negative interactions with todd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33*, 77-88.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3),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